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10포인트 활자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제출함

1980년 11월 30일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도안과 도안전공

안 상 수

이 작은 보람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드립니다.

며, 매쓰 미디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5)

옛날에 살던 타이포그래퍼는 신을 위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한정된 독자만을 위해서 디자인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전달문제는 2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독서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여 대중화되고, 전달을 해야 하는 메시지도 많아지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추였다. 이렇듯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수단으로서의 책 등은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달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달문제의 전제는 읽기 쉬워야 한다는 데 제일의적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독성에 대한 탐구는 타이포그래피에 선행되어야 하며, 더우기 한글의 경우는 그 글자꼴이 외국의 것과 다름으로 해서,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을 이러한 가독성의 연구결과가 한글의 기능적인 사용에 이용되어 단편적으로나마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합리적인 운용에 이바지함에 두고자 한다.

5) Rolf F. Rehe, Typography : how to make it most legible, 3rd rev. ed. (Carmel : Design Research International, 1979), pp. 13-14.

국 문 초 록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가독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량전달 시대에 있어서 독서의 주체인 사람을 위한 인간적인 의미에서, 디자인상의 미학적인 접근 방법보다 제일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본 논문은 한글에 대한 독자적인 가독성 연구 및 외국의 실험적 선행연구를 발췌 요약하여 그 실험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시작(試作)을 만들었다.

이 중 필자의 한글에 대한 몇가지 가독성 실험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낱글자 : 수평형 합성(垂平形 合成)글자(예 : 를, 루, 보 등)의 경우에만 오른 쪽에 가독성의 단서가 편중되어 있다. 이는 일본글자가 사방에 고루 단서가 산재되어 있고, 알파벳의 경우 위와 오른쪽에 단서가 있는 것에 비하면 한글 낱글자 상하좌우의 있는 가독성의 단서는 외국의 글자보다 불리하다.
2. 글줄 길이와 글줄사이 : 글자크기가 10포인트 일 때 글줄길이가 8센치미터, 글줄사이는 5포인트 띄는 것이 가장 빨리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글자 사이 : 현재 시중 사진식자에 쓰이는 정상적인 글자사이 띄기보다 좁혀주는 것이 독어율(読語率)이 높았다.

4 . 가로짜기와 세로짜기 : 조사대상인 20대의 경우 가로짜기를 한 것이 세로짜기한 것 보다 가독성이 높았다.

5 . 고딕체와 명조체 : 명조체가 가독성이 높았다.

이 외에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시작에 필요한 끝맞추기와 끝흔리기 까만 바탕에 흰글씨, 여백, 칼러 및 배경, 숫자 등에 대해서는 '팅커' '홀름즈' '패터슨' '스트롱'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 하였다.

목 차

I . 서 론	1
가 . 연구 목적	2
나 . 연구 범위 및 방법	6
II . 독서와 지각	9
가 . 독서할 때의 심리	9
나 . 독서할 때의 눈 운동	9
(1) 비약운동	12
(2) 응시점류	14
(3) 역행운동	15
다 . 가독성의 요소	17
III . 가독성 연구 조사	19
가 . 낱글자	19
나 . 글자 크기	30
다 . 글줄 길이	32
라 . 글줄 사이	34
마 . 글줄 길이와 글줄 사이의 실험	36
바 . 고딕체와 명조체	39
사 . 글자 사이	40
아 . 가로짜기와 세로짜기	40

자 . 끝맺추기와 끝흘리기	45
차 . 까만 바탕에 흰 글씨	46
카 . 여백	47
타 . 칼리와 배경	49
파 . 숫자	49
IV . '페이지 디자인' 에의 응용	51
가 . 활자	51
나 . 디자인 접근방법	54
V . 결 론	56
참고문헌	58
영분초록	65

I . 서 론

한글에 대한 독자적인 가독성 연구 및 외국 타문자의 실험적 선행연구를 발췌 요약하여 하나의 가독성이 높은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시작(試作)을 만들에 있어서, 우선 가독성이란 용어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말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가독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에는 '레지빌리티 (legibility)' 와 '리더빌리티 (readability)' 가 있다. '레지빌리티'는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 (discriminating and recognizing process)' 를 일컫는 것이며, '리더빌리티'란 '보고 지각하는 과정 (scan-and perceiving process) 의 성공도' 를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¹⁾

그러나 초기에 있어서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의할 때에는 '레지빌리티' 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리더빌리티' 라는 말은 1940년 경부터 일부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이 말은 좀 광범위하고, 한층 의미깊은 용어로 되었다. 어쨌든 '리더빌리티' 라는 말은 '독서재료의 정신적 장애 (mental difficulty) 수준을 측정하는 것' 이라고 말하

1) Sandra B. Ernst, The ABC's of Typography (New York: Art Direction Book Co., 1977), pp.133-139.

게 되어, 용어가 두 갈래로 갈라져 혼동을 초래하였다. 2)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있어서의 가독성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레지빌리티의 정의로 한정 지으려 한다.

레지빌리티는 글자나 낱말을 지각하는 것과 연결된 본문 독서 재료의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글자의 모양은 꼭 식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성을 지닌 낱말의 형태는 지각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본문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읽혀져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의 마지막 분석에서 사람들은 어떤 타이포그래피 요소가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속도를 빠르게 조장시키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인쇄물이 갖는 최상의 가독성은 글자나 그 외의 다른 심볼의 형태, 특성을 지닌 낱말의 모양, 글자크기, 글줄사이, 글줄길이 등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이 이해됨과 동시에 안정된 모양과, 독서에 용이하고 빠르게 읽게 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적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지빌리티'란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나 다른 심볼, 낱말, 그리고 연속적인 본문 독서재료에 있어 본질적인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 연구 목적

타이포그래피란 '타이프(type)' 즉 활자, 혹은 활판에

2) Miles A. Tinker, Legibility of Print(Ames,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3). p.4.

3) Ibid., pp.7 - 8.

의한 인쇄술을 지칭하여 왔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문자를 구성하는 디자인을 일컬어 타이포그래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활판에 의한 문자의 구성 뿐만 아니라, 평판(平版)에 의한 것, 오목판에 의한 것도 타이포그래피의 범주에 속하여 제관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 레터링은 어떤 디자인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문자를 묘사하는 것인데 반하여,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또는 사진식자에 의한 문자라는, 이미 한 자 한 자에 대해서는 디자인된 문자를 사용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문자 뿐만 아니라 인쇄를 위한 배선(界線)이나 화형(花形) 등의 장식, 동그라미 또는 네모꼴로 된 기호를 사용하여 구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이 되는 활자 또는 사진식자의 문자디자인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들을 잘 선택하여 목적에 맞는 개성적인 구성을 하는 것 역시 타이포그래피의 중요한 일일 것이다. 4)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타이포그래퍼 (typographer)'라고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타이포그래퍼는, 바꾸어 말해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 수도 있다. 본디 타이포그래퍼란 주자공(鑄字工: typecaster), 식자공(權字工: typesetter), 인쇄공(printer)의 역할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을 뜻한 것이었

4) 日本 文部省, 「ビジュアルデザイン」(東京: 実教出版株式会社, 昭和51年), p.23.

다. 그러나 인쇄와 식자가 전문화되고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 타이포그래퍼는 전문 직업인이 되었다. 아마도 일개 전문가로서 타이포그래퍼의 발전은 20세기 초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는 모토 아래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에 도전했던 바우하우스 디자이너 그룹들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타이포그래퍼라는 전문인들은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타이포그래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쓰·미디어 시대인 현대를 살고 있는 타이포그래퍼는 그들이 일을 함에 있어 디자인이 갖고 있는 미학적인 면만이 아닌 현대적인 인쇄방법이나, 식자기술이 갖는 기술적인 면과 가능성에 대해 잘 터득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덧붙여 타이포그래피의 심리학, 가독성 연구의 결과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매쓰·미디어 시스템에 있어서 타이포그래퍼는 통상 '기호화 팀 (encoding team)'의 일원이 된다. 타이포그래퍼는 메시지의 근원과 메시지를 독자에게 나르는 채널 (channel : 이곳에서는 인쇄된 페이지) 중간에서 활자체를 고르고, 글씨 크기를 선택하여, 레이아웃을 하면서 기호화 과정 (記号化 過程 : encoding process)을 심사숙고하여 통제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이포그래퍼는 미학적인 인쇄를 위한 디자이너 만일 수 없고, 단지 일개인으로서의 작가나 공예가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퍼는 대량 전달자이

며, 매쓰 미디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5)

옛날에 살던 타이포그래퍼는 신을 위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한정된 독자만을 위해서 디자인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전달문제는 2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독서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여 대중화되고, 전달을 해야 하는 메시지도 많아지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추였다. 이렇듯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수단으로서의 책 등은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달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달문제의 전제는 읽기 쉬워야 한다는 데 제일의적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독성에 대한 탐구는 타이포그래피에 선행되어야 하며, 더우기 한글의 경우는 그 글자꼴이 외국의 것과 다름으로 해서,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을 이러한 가독성의 연구결과가 한글의 기능적인 사용에 이용되어 단편적으로나마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합리적인 운용에 이바지함에 두고자 한다.

5) Rolf F. Rehe, Typography : how to make it most legible, 3rd rev. ed. (Carmel : Design Research International, 1979), pp. 13-14.